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2020-4호

15년 후의 나에게

자신에게 잘 맞는 일(직업)을 가지면 그를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잘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잘 잡기 위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봅시다.

나는 누구인가요?

현재 자녀가 어떤 성격과 특징,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모습과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며 살펴봅시다.

예시) 초등이는 동화구연을 잘합니다.

초등이는 발표를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보는 나〉

는
과목을
잘합니다.

〈부모님이 보는 나〉

는
을(를)
잘합니다.

는
을(를)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보는 나〉

친구들은 [] 을(를)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 는
[] 을(를)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현재의 약속〉

나는 꾸준히 [] 을(를)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새롭게 [] 을(를)
배울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초등학생 때 [] 만은
꼭 해볼 것을 약속합니다.

〈미래를 위한 다짐〉

나는 []
[]
다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과 이유〉

원하는 직업:
[]
[]

원하는 이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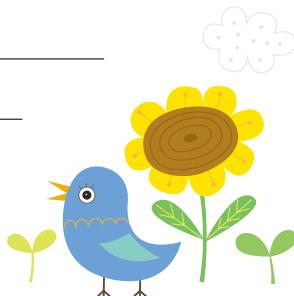
드림 레이터 특집호

진로를 디자인하라

미래를 그려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추상적으로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중학생이 되었을 때 혹은 고등학생 때는 어떤 걸 새롭게 배우고, 무엇을 좋아할지, 어떤 꿈을 향해 가고 있을지 10년, 20년 후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도록 도와주고, 편지를 다 쓴 후에는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소감도 함께 들어봅시다.

※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인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To. _____



※ 성인이 된 나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 보세요.

To. _____

※ 편지 쓰기 TIP

-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 미래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진로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요?
- 다가올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하나요?
- 미래의 나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남겨 주세요.

※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본 소감을 남겨보세요.
